

인문학이 위기라고? 고수들 명강의 들어봐

철학아카데미·'풀로 엮은 집' 등 인터넷 강좌 서비스



한·일, 북 예술의 진수

내달 1일 광주문화회관·日국제교류기금 공동 공연

한국과 일본 양국 '북 예술'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흥겨운 공연이 열린다.

광주문화회관과 일본국제교류기금은 다음달 1일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한·일 북의 향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도쿄 국제일본 다이코(太鼓) 콘테스트에서 두 차례나 최우수상을 수상한 기지마 다이코 그룹과 광주시립국극단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기지마 다이코 그룹(사진·회장 고바야시 하루히코)은 1983년 나가노현 시모타카이군 기지마 다이라촌 젊은이들에 의해 창단돼 호주·미국·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여러 차례 해외공연을 가진 일본 최고의 다이코 그룹.

일본 북의 대표격인 나가도 다이코를 비롯해 가츠기오케다이코, 팻토 등 다양한 북을 선보이는 이번 공연에서는 관재, 난타, 불꽃 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이나믹한 연주를 들려준다.

광주시립국극단은 모듬북, 사물놀이, 소고와 장고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기지마 다이코 그룹은 31일 오후 2시30분 시각장애인 학교인 세광학교와 오후 5시 30분 광주 비엔날레 빛카페 공연장에서 두 차례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062-510-936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문학 고수들의 명강좌를 인터넷으로 만난다.'

최근 사회 전반에 인문학의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전문가들의 인문학 강의가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철학이나 인문학 등의 온라인강의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철학아카데미, 민예총 문화센터, 문화공동체 '풀로 엮은 집' 등. 온라인 업체들은 이곳에서 이뤄지는 강의를 영상에 담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온라인 문예교육 포털 '아트앤스터디'(www.artstudy.com·사진 위)는 철학아카데미의 철학 강의 등 문학, 문화 예술 일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서비스하고 있다.

'논객' 진중권의 미학 강의는 스테디셀러로 인기가 높다. 종류만도 '현대미학-송고와 시물라크르', '현대미학기행 : 주요 미학이론을 중심으로', '모더니즘의 미학' 등 6개에 달한다. 한가지 주제당 10~14강좌(1강 50분 가량)가 3만~5만원에 서비스된다.

철학아카데미 공동대표인 이정우의 철학 강의, 학문공동체 '유우+너머' 대표인 고병권의 니체 강의, 문예아카데미 교장인 김상봉의 해설 강의, '들뢰즈와 영화'의 저자 박성수의 영화 강의의 등도 지방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강의들이다.

이 밖에 소설가 박병신의 '소설 창작', 시인 김지하의 '생태시', 대중음악



철학·미학 등 알기쉽게 해설

입소문 타고 지역민에 인기

약평론가 임진모의 '로큰롤' 강의와 건축, 고전, 사진 등 문화 전반에 걸친 강의들이 준비돼 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문화공동체 '풀로 엮은 집'(www.pullob.com·사진 아래)의 강의는 인터넷 서점 '예스24'(www.yes24.com)에서도 제공된다. '풀로 엮은 집'에도 인기 강사인 진중권, 이정우, 고미숙, 조광재, 김현준, 이성이 등의 정규 강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 현재 4회까지 진행된 '상상특강' 시리즈는 '상상'을 주제로 홍세화, 오연호, 김규향, 노희찬, 신경림, 신해철, 박찬욱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펼친다.

인문학 온라인 강의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난해한 철학이나 인문학 주제들을 해박한 지식으로 현재의 상황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와 데카르트, 들뢰즈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사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 검증을 마쳤다는 점도 사용자들에겐 안심이다.

'풀로 엮은 집' 김동완 강좌팀장은 "강사들의 동의를 얻어 비디오 촬영을 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하자 입소문을 타고 점점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원 전창현(32·광주시 광산구 산월동)씨는 "평소에 인문학 서적이거나 잡지, 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인문학 고수'들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다"며 "강의에 참석해 질문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저렴한 가격에 장소의 구애 없이 보는 장점 때문에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그들 '노네임', 재개발 철거 예정 주택에 '예술의 온기'



그들 '노네임(noname)' 회원 최선씨가 재개발 대상 빈집에서 전시 중인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빈집, 갤러리되다

한옥 벽면·화장실·부엌에 각종 미술품 전시

빈방에 걸려있는 작품들이 백열등 조명을 받고 있다. 황토 벽면에는 뜯겨진 벽지 대신 각종 미술품들이 전시돼 주인 떠난 빈집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화장실, 부엌에도 작품이 걸렸다.

재개발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내년 철거될 예정인 광주시 남구 백운동 15-17번지 한옥주택이 젊은 작가들의 활기찬 갤러리로 변신했다.

폐가나 다름 없던 빈집을 전시장으로 바꾼 주인공들은 그룹 '노네임(noname)'의 최선(26), 이진상(26), 박인선(24)씨 등 3명. 이 집은 박인선씨의 조부모가 살았던 외갓집이다.

이들은 한옥에 살았던 사람들과 삶의 흔적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곳에서 노네임 창립기념 '그 여자의 누룽지'전(31일까지)을 열고 있다.

전남대 미술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노네임 회원들은 방이 많은 2층 한옥의 특징을 고려해 공간을 7개로 나

눠 각자 주제를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박인선씨는 조부모의 손때가 묻은 손톱깎기, 열쇠고리, 병뚜개, 문고리 등을 지퍼백에 담아 벽면에 전시하고 있다. 쓸모 없지만 추억이 깃든 물건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여성성을 추구하고 있는 최선씨는 '빈집의 공포'를 주제로 빈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퀴벌레를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작품과 영상, 회화 등을 다락방에 전시하고 있다.

한국화를 전공한 이진상씨는 전통소재인 닥종이를 색조처럼 몸에 붙여 만든 여년 자화상과 신체를 통해 오래된 집에 대한 추억을 형상화했다.

박인선씨는 "집주인이 떠나 빈집이 됐지만 잠깐 동안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찾은 의미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전시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수표
7시 10시~19시 50분
652-7544

KT
메가패스
일반전화
080-062-0100

수표
7시 10시~19시 50분
652-7544

노노노노노
노노노노노

노노노노노
노노노노노

노노노노노
노노노노노

이랜드부동산건설팀
F. 062-363-0160
H. 010-8874-0982

공장, 물류창고 전문
건축·기계·설계·건축

거상부동산건설팀
F. 062-719-9901 H. 010-719-9901

부동산 교환
F. 062-719-9901 H. 010-719-9901

부동산 교환
F. 062-719-9901 H. 010-719-9901

파티와식산업
파티와식산업

파티와식산업
파티와식산업

파티와식산업
파티와식산업

속타크린 광주-전남 시·군·구 대리점 모집
속타크린 광주-전남 시·군·구 대리점 모집

중고자동차 전자중 매입·판매
중고자동차 전자중 매입·판매